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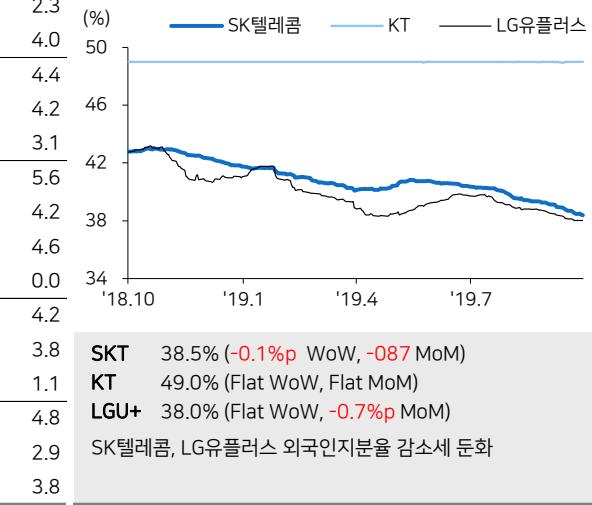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19.10.0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2.6	0.6	-4.3	-8.5	13.1	13.1	0.9	0.9	2.3	2.3	
통신업종	-2.0	-0.2	-8.3	-5.3	13.5	13.5	0.7	0.7	4.0	4.0	
SK텔레콤	-2.1	-1.1	-10.7	-4.9	15.6	11.4	0.8	0.8	4.3	4.4	
KT	-2.0	-0.6	-5.1	-2.4	10.3	9.0	0.5	0.5	4.1	4.2	
LG유플러스	-1.8	3.1	-4.3	-7.8	13.0	11.2	0.8	0.8	3.0	3.1	
AT&T	0.2	3.5	9.4	16.0	10.5	10.3	1.5	1.5	5.5	5.6	
Verizon	-0.7	1.4	2.7	1.4	12.5	12.2	4.1	3.5	4.1	4.2	
T-Mobile	0.6	-1.5	2.3	10.9	19.5	16.2	2.3	2.1	0.0	4.6	
Sprint	0.3	-11.0	-13.8	7.8	83.2	N/A	0.9	1.0	0.0	0.0	
NTT Docomo	1.4	4.8	9.6	18.2	14.2	15.7	1.7	1.7	3.9	4.2	
KDDI	3.2	4.3	6.2	22.3	11.5	11.1	1.7	1.6	3.4	3.8	
Softbank	-5.4	-11.7	-21.9	-24.5	7.1	6.9	1.3	1.0	0.5	1.1	
China Mobile	1.1	-1.7	-8.3	-18.2	10.9	10.9	1.1	1.0	4.8	4.8	
China Unicom	2.0	4.6	-2.1	-18.8	18.0	13.3	0.7	0.7	2.2	2.9	
China Telecom	1.4	0.8	-7.2	-16.3	11.9	11.2	0.7	0.7	3.5	3.8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6%p 수익률 기록하며 Marketperform 마케팅비용에 대한 우려가 잦아드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외국인 순매수세로 전환 삼성전자는 일본 KDDI의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 향후 5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장비 공급 예정 국내 기관은 LG유플러스 순매수, SK텔레콤, KT 순매도, 외국인은 LG유플러스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11일 LG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V50S 씽큐'를 출시할 예정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시 이후 보조금 경쟁은 크지 않을 전망 삼성전자의 일본 등 해외 5G 장비 수주가 시작되면서 수혜가 가능한 국내 통신장비주에 주목 조만간 중국의 5G 상용화가 시작될 전망이며, 일본 역시 내년 여름 올림픽을 기점으로 5G 상용화 계획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9	30	1	2	3	4	5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6 7 8 9 10 11 LG전자,
'V50s 씽큐'
출시 12

3 주간 뉴스

▶ 삼성 5G 장비로 도쿄올림픽…2조3500억 일본 수출 따냈다

(중앙일보)

- 삼성전자가 일본 2위 이통사인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 5년간 20억 달러 공급 예정
-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3년까지 5만3626개의 기지국을 설치 계획
- 일본을 벌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도 진출 목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5G 협력 방안 논의 중
- ⇒ 삼성전자 수주액 20억달러는 KDDI 5G 설비 투자액의 약 절반. 주로 수도권 장비를 담당할 예정
- ⇒ 해외 5G 시장의 개화 및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로 인해 국내 5G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 전망

▶ 과기부, 국회 국감서 5G · 자급제 이슈로 혼쭐

(IT조선)

- 2일 과기부 국감에서는 5G 투자 세액 공제 및 단골 이슈인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주요 현안
- 5G 세액 공제는 수도권이 제외되고, 중소기업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
-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대책도 미비했다는 평가. 불법보조금이 만연한 시장 상황에 대한 비판
- ⇒ 5G 세액 공제 방안 확대 움직임은 향후 국내 5G 전국망 투자 규모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 불법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경쟁은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

▶ 공정위, SK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 발송

(전자신문)

-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SKB-Tbroad 간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자에 발송
- 아날로그 방송 요금 일정 기간 인상 금지 및 케이블TV->IPTV 강제 전환 금지 조건 부과가 유력
- 결정적인 제한은 아니라는 평가. 공정위 승인 후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확정
- ⇒ 공정위 전체회의는 10월 16일 예정. LGU+-CJ헬로 인수 및 SKB-tbroad 합병 최종 승인 예정
- ⇒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최대 쟁점. 케이블TV와 IPTV를 따로 판매할 시 통합법인 취지가 무색

▶페이스북, KT · 세종텔레콤과 망이용계약 체결

(ZDNet Korea)

- 1일 페이스북코리아는 KT, 세종텔레콤과 망 이용 계약 체결 발표. 계약 규모 및 기간은 비공개
- SKB와는 이미 이전에 계약을 체결. 현재 LGU+ 및 중소 통신사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
-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대표 등이 증인 채택. 관련 논의 집중될 전망
- ⇒ 상호접속제도 이전 페이스북 망이용료 규모는 연간 150억 수준. 현재는 해당 규모 하회 추정
- ⇒ 4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관련 질의에 대답을 회피하며 망사용료 지불 의지가 없음을 확인

▶ '웨이브' 일일 유료가입자 최대 4.5배 ↑ …'녹두전' 순항에 '화색'

(아이뉴스24)

- 웨이브 출범 후 일일 유료가입자 순증 평소대비 최대 4.5배, 피크타임 트래픽은 30% 이상 증가
- 월정액 가입자에게 1천여편 영화를 무료 제공. 오리지널 콘텐츠 '녹두전'도 시청률 8.3% 기록 중
- 단독 공개 해외시리즈 및 프로야구와 e스포츠에 대한 반응도 호의적. 향후 관련 콘텐츠 추가 예정
- ⇒ '녹두전'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고무적. 향후 공격적 콘텐츠 투자가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전망
- ⇒ 한편, KT 역시 '올레TV모바일' 명칭을 '시리얼'로 바꾸면서 OTT 서비스 차별화에 나설 방침

▶통신 3사, 담합으로 6개월간 공공사업 참여 제한

(전자신문)

- 조달청은 공공 회선 통신사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 제재 6개월 결정. 10월 초부터 효력 발생
- 최대 2년의 부정당 제재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통신망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감경
- 통신사가 가처분소송을 제기,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부정당 제재 효력 발생 시기 지연
- ⇒ KT는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철도통합망 등 4분기 주요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시기 조절
- ⇒ SKB 및 LGU+도 신청할 계획. 특히 SKB는 자진신고 및 단순 가담 사실을 들어 수위 조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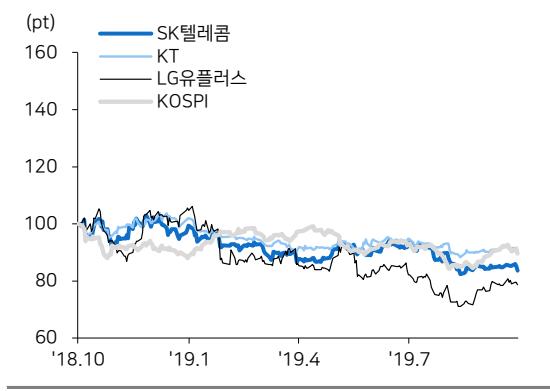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34,500	15.9	14.8	15.5	1.1	1.2	1.0	1.3	4.2	4.4	5.5	5.2	5.1	6.5
	KT	26,950	5.9	20.1	20.6	1.0	1.1	0.6	0.6	4.0	4.2	2.6	2.5	5.1	5.7
	LG유플러스	13,500	4.9	10.5	10.9	0.6	0.6	0.4	0.4	3.0	2.4	2.4	3.0	6.5	7.3
미국	AT&T	37.5	274.1	182.5	182.9	37.1	37.9	25.0	25.6	60.0	60.5	7.8	7.8	12.5	12.6
	Verizon	59.9	247.7	131.3	133.0	31.3	32.2	19.5	20.4	48.2	49.2	7.9	7.8	34.6	30.4
	T-Mobile	78.0	66.6	45.3	47.5	5.8	6.9	3.4	4.1	13.2	13.8	8.2	7.8	11.6	14.4
	Sprint	6.1	24.8	33.4	32.8	2.7	2.1	0.3	-0.4	12.6	11.6	5.2	5.6	1.2	0.2
일본	NTT Docomo	2,814	87.8	43.2	42.8	9.0	8.0	6.2	5.5	13.7	13.4	6.2	6.6	12.6	11.1
	KDDI	2,942	64.8	46.5	48.6	9.2	9.6	5.6	5.8	14.4	15.5	5.3	5.0	15.5	14.2
	Softbank	4,120	80.6	86.2	89.9	16.5	13.0	10.8	11.9	27.6	25.9	8.1	8.8	14.6	16.2
중국	China Mobile	65.0	169.7	104.3	107.0	15.9	15.9	15.3	15.6	40.1	40.9	3.0	3.0	10.0	9.7
	China Unicom	8.4	32.6	40.9	43.1	2.0	2.7	1.8	2.4	13.0	13.8	2.5	2.4	4.0	5.3
	China Telecom	3.6	37.0	54.1	56.3	4.5	4.7	3.1	3.3	16.0	16.4	3.2	3.1	6.4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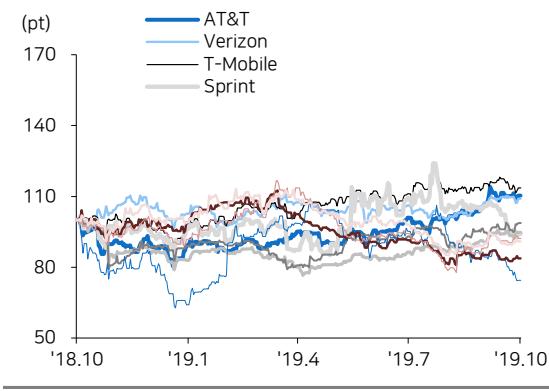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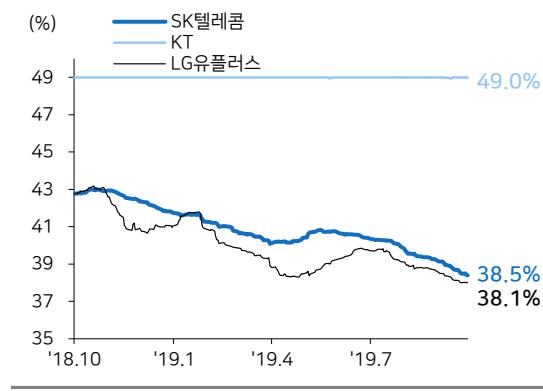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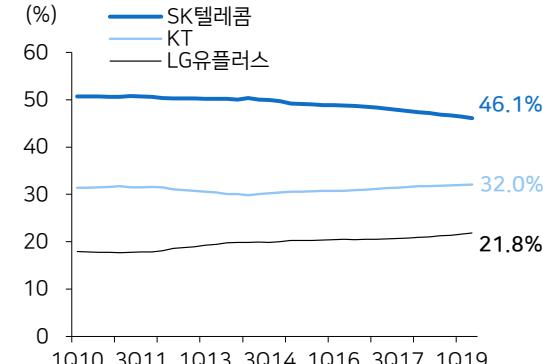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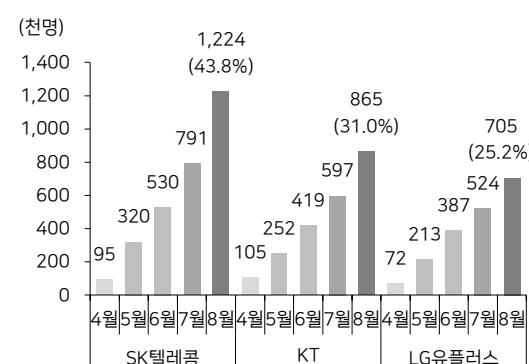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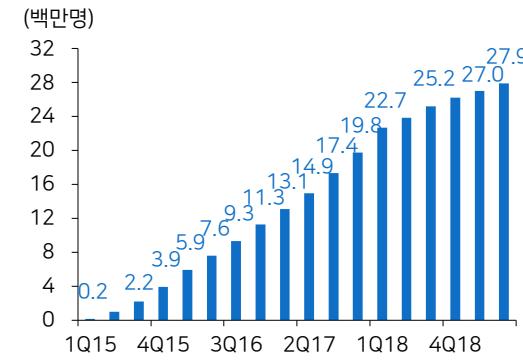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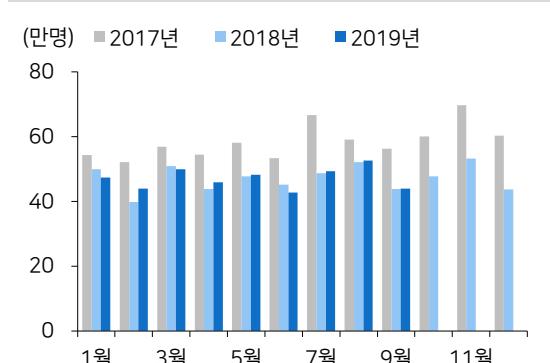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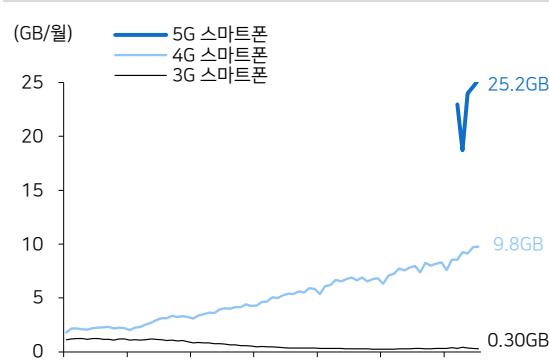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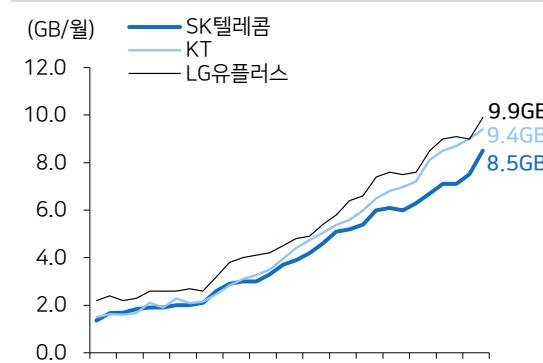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